

공정방송 기벌아래 전국이 하나로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문화방송 노보

228호

2017년 7월 28일

무단협 1654일째
지명파업 481일째

발행인 김연국 / 편집인 허유신 /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상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PD수첩〉 제작 중단 8일째

'MBC 재건'을 향한 최후의 전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터질 게 터졌다” 임계점 넘은 제작 자율성 침해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21일(금) 오후 6시를 기해 제작 중단에 돌입했다. 사측의 제작 자율성 침해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제작 중단에 나선 강효임·김현기·서정문·소형준·이영백·전준영·조윤미·조진영·최원준·황순규 PD 등은 24일부터 매일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퇴근시간에 맞춰 사옥 안팎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다른 부문의 조합원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이들의 투쟁에 힘을 실고 있다.

“언론노조원은 노동 취재 불허” 이영백 PD 2개월 대기발령

〈PD수첩〉의 이영백·조윤미 PD는 ‘한상균을 향한 두 개의 시선’(가제)이라는 프로그램 기획안을 제출했다. 민중총궐기를 이끌었다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례와 故백남기 농민, 급식 노동자 비하 발언, 집배원들의 자살 등을 조명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고찰해보자는 취지의 기획안이었다.

그러나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은 “민주노총은 당신들이 소속된 언론노조의 상급 기관이고, 당신들은 언론노조 조합원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방송 심의규정에 위반된다”며 제작을 불허했다.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PD수첩〉 제작진은 24일 오전 제작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현기 PD는 “저희는 노조 조합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PD로서 본인의 양심에 근거해 사실에 맞게 그 방송을 만들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작과정을 충분히 논의하고, 팀장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면 국장의 권한인 시사를 통해 의견을 들어 수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발제

한 PD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템은 못 다룬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측은 25일 이영백 PD를 2개월 대기발령 조치했다.

사측의 궤변·막말·거짓말 프로그램 기획안 공개로 ‘망신’

사측은 제작 중단 당일인 21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비난 성명을 쏟아냈다. 지난 25일 〈사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성명 일부를 보자.

〈PD수첩의 아이템 발제자가 당초부터 최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 등 한국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보편적으로 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획안을 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는 사측의 왜곡과 날조와 선동이다. 실제 제출된 기획안의 해당 부분이다.

〈최근 한 국회의원의 급식조리사 파업에 대한 막말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시선은 냉정하기만 하다. 실제로 과중한 업무에 내몰린 버스 기사들의 졸음운전 사고, 집배원들의 잇따른 자살 등 우리사회의 암울한 노동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국제노동권리지수 조사에서도 한국은 꼴찌 등급인 5등급을 받으며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는 어떻게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막고,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PD수첩〉 부장, 보직사퇴… 김장겸·김도인·조창호 검찰에 고소

〈PD수첩〉팀장이었던 장형원 부장은 24일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장 부장은 보도본부 명의로 나온 지난 11일 성명서와 19일 〈뉴스데스크〉에서 2008년 미국 쇠고기 협상을 다룬 〈PD수첩〉을 공격한 사실을 들어 “같은 회사 프로그램을 국민을 속이는 방송이라고 비판하고 자해하는 보도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언론사인가”라고 물었다. 또 21일자 시사제작국 명의로 성명을 언급하며 “해당 부서장이 소속 프로그램 존재를 부정하는 성명서를 내는 것이 정상적인 조직인가”라며 “저는 〈PD수첩〉 팀장이기 전에 한 명의 PD이고 인간이다. 이제부터는 제 양심을 지키고 싶다”고 밝혔다.

24일과 25일에는 콘텐츠제작국 PD총회와 시사제작국 전체 구성원들의 총회가 잇따라 열렸다. 이들은 〈PD수첩〉의 1일 3회 피케팅 시위에 적극 동참하고, 해당 국에서 지난 수년간 벌어진 제작 자율성 침해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MBC 기자협회 역시 긴급 대의원 회의를 열어 보도국의 불공정 뉴스와 부당한 취재 지시, 제작 불허 사례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노동조합과 이영백·조윤미 PD는 오늘(28일) MBC와 김장겸 사장,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 조창호 시사제작국장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동 관련 취재와 제작을 불허한 사측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PD수첩
기자회견문

저희는 <PD수첩>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희는 방송을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번째 방송을 만들기 위해

201. 길었던 2012년의 170일 파업이 끝난 이후 저희 PD수첩 제작진들이 오늘까지 만든 방송의 숫자입니다. 무려 5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들이 유난히도 많았던 그 5년 동안 저희 PD수첩은 사안의 핵심을 파고드는 취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201번의 방송을 했습니다. ‘아직도 PD수첩 방송이 나가는 하나?’는 질문에 ‘예, 우리 PD수첩 방송 잘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파업 전후로 회사는 PD수첩 PD 절반 이상을 해고하거나 징계하고 타부서로 발령 낸 후, 그 빈자리를 파업 중에 뽑은 대체인력들로 채웠습니다. 그들이 회사의 입맛에 맞는 PD수첩 방송을 만드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제작 현장에 남은 저희들은 ‘해야 하는 아이템은 못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아이템이 방송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회사의 징계와 부당인사 앞에 무력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이 최악의 방송을 하지는 못하게 버티자며 견딘 지난 5년입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저희 PD수첩 제작진들은 202번째의 방송 제작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만들 수 없는 PD로서의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입니다. 앞으로 회사가 저희에게 가할 일들을 생각하면 아득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PD수첩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맑은 양심으로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자들에 맞서려 합니다.

‘당신들은 민주노총 청부업자’라는 극언

저희 제작진은 8월 1일 방송을 위해 ‘한상균을 향한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야기를 고리로 삼아, 한국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취재하려던 기획입니다. 최근 불거진 한 국회의원의 노동자 비하 발언, 집배원 자살, 줄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버스기사, 최저임금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동 문제는 1990년 5월 첫 방송을 시작한 PD수첩이 지난 27년간 솔하게 다뤄왔던 아이템이고, 앞으로도 다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은 이 아이템에 대한 취재를 막았습니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 4항을 들먹이면서 말입니다.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문제에 있어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PD들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취재를 불허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PD수첩 제

작진이 노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노동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면, 똑같은 논리로 MBC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역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입니다. 회사 측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노조가 있는 모든 방송과 신문사는 노동문제에 관한 취재를 해선 안 될 겁니다. 말이 안 되지요. 회사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더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방송사가 PD의 취재를 막기 위해 동원한 논리의 수준이, 참담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의 주장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재 자체를 못 하도록 한 것은, 노동문제를 취재하려면 노조를 탈퇴하라는 요구에 다름 아닙니다.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은 회사에서 여전히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살풍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더군다나 회사는 시사제작국 명의로 해명서를 발표하며 저희 제작진의 기획의도를 무시하고 방송이 일방적인 의견을 담아 한상균 위원장의 구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 심지어 PD수첩이 ‘민주노총의 청부 제작소가 될 것’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심과 상식에 따라 어떠한 편향도 없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하는 저희 제작진에 대한 모욕입니다. 지난 10년 방송을 사유화하고 권력의 안위를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장본인들이 어찌 청부 방송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만약 시사제작국장이나 편성제작본부장이 정말 심의규정 9조 4항을 지키고자 한다면, PD수첩 제작진의 방송을 막을 것이 아니라 MBC 경영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온 MBC 뉴스의 행태부터 비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MBC를 비호하는 MBC 뉴스를 문제 삼은 적 없습니다. 지난 5년, MBC에 대한 시청자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청률이 추락하는 동안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도 보직은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바람이지만 말입니다.

‘세월호는 국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말장난

세월호 참사는 PD수첩이 얼마나 끔찍한 지시와 저열한 방해 속에서 제작되고 있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세월호 침몰 6일째가 되던 2014년 4월 22일, 세월호 방송을 몇 시간 앞두고 최종 편집에 몰두하던 당시 제작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유가족이 우는 장면을 최대한 삭제하라”는 겁니다. 제작진은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이 우는 걸 빼라면 어떡합니까?”라며 저항했지만 팀장 지시 이후 몇 장면이 삭제되었습니다. 일종의 보도지침, 그리고 그에 대한 제작진의 저항 이후 3년간 시사제작국장들은 세월호를 다루겠다는 PD들의 기획을 모두 막아섰습니다.

<4면에 계속>

〈3면에 이어〉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야 세월호를 취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101분의 기록〉 편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검열은 이어졌습니다. 시사제작국장은 ‘국가’와 ‘청와대’라는 말을 삭제하라 지시했습니다. 내레이션에서 ‘국가’를 삭제하라고 압박하며 시사제작국장은 ‘제작진이나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국가 탓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세월호 사고 직후 국가안보실과 해경 본청과의 통화 내용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국가안보실이 청와대 소속이 확실하냐’고 물으며 청와대를 뺄 것을 집요하게 강요했습니다.

논리의 탈을 쓴 망언들로부터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은 나름의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언론인으로서의 존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송심의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방송사의 국장과 본부장을 상대할 때마다, 세월호는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장난으로 방송을 망치는 자들을 상대할 때마다 ‘이런 자들을 책임자로 앉혀 놓은 회사에서, 도대체 PD로 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 앞에 섰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켜야 한다는 마지막 사명으로 버텨왔습니다.

다시 PD수첩을 만들고 싶습니다

회사는 PD수첩 방송을 막았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면, 시사제작국장과 편성제작본부장이 제작진과 한 테이블에 앉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제작과 시사 과정에서 충분히 국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취재를 원천 봉쇄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을 잘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PD들과, 방송을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듯 손쉽게 불방을 결정해버리는 회사의 여유가 극명하게 대립합니다. 저희는 회사의 이런 태도가 방송을 사유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송의 진짜 주인인 국민들께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MBC를 사유화하려던 자들에게 맞서 싸웠고 끝내 해고된 최승호PD, 강지웅PD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PD수첩 제작진이었던, 그러나 쫓겨난 동료 선배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그 표정들에 있습니다.

PD수첩 제작진 강효임, 김현기, 서정문, 소형준, 이영백, 전준영, 조윤미, 조진영, 최원준, 황순규

PD수첩 제작진의 요구

1. PD들이 양심과 상식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자율성을 보장하라.
2.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이번 제작 중단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조창호 시사제작국장님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은 사퇴하라.

PD수첩 제작 자율성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

2013년 3월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아이템

“노인네들 병원에서 나가는 방송 해봤자 시청률 안 나와”라며 아이템 불허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는 2013년 초,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을 결정했다. 폐업으로 인해 당장 치료를 중단해야 했던 저소득 환자들이 문제였다. 진주의료원은 당시 저소득 환자를 매년 3만 명 이상 치료해 온 공공병원으로, 공공의료시설을 재정적자를 이유로 폐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논란이 되었다. 해당 아이টে을 취재하겠다고 기획안을 제출했으나 당시 시사제작국장은 “지방에 있는 병원 하나가 문 닫는 일에 누가 관심이 있겠냐? 노인네들이 병원에서 나가는 방송 해봤자 시청률 안 나온다”며 아이টে을 불허했다. 이에 문제 제기를 했던 담당PD중 한명은 제작과 상관없는 DMB송출실로, 다른PD는 심의실로 인사 발령이 났다.

2014년 4월 〈세월호〉 “유가족 우는 장면을 삭제하라”

세월호 침몰 6일째가 되던 2014년 4월 22일, 세월호 방송을 몇 시간 앞두고 최종 편집에 몰두하던 당시 제작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지시가 내려왔다. “유가족이 우는 장면을 최대한 삭제하라”는 지시였다. 제작진은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이 우는 걸 빼려면 어떡합니까?”라며 저항했지만 팀장 지시 이후 몇 장면이 삭제되었다. 일종의 보도지침, 그리고 그에 대한 제작진의 저항 이후 3년간 시사제작국장들은 세월호를 다루겠다는 PD들의 기획을 모두 막아섰다.

2014년 10월 14일 〈구명난 해외자원개발, 사라진 나랏돈 2조원〉

이명박 전 대통령 비판 방송 후, 담당PD를 스케이트장으로

〈구명난 해외자원개발〉 방송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방송이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후 담당PD들에 대한 부당한 조치들이 있었다. 당시 담당PD 중 한 명은 신사업개발센터로 발령이 났으며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스케이트장 홍보 및 관리 업무를 맡았다. 이 PD는 2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대법원의 전보무효 판결을 받고 2017년 4월에야 복귀했다. 해당 방송을 함께 연출했던 또 다른 PD는 당시 인사평가가 포함된 기간에 ‘창사기념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지만, 정작 인사고과에서는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이후 하위 점수를 받은 사원들과 함께 몇 주간에 걸쳐 사내 교육을 받았다.

2015년 7월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금기어가 된 ‘국정원’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제작 업체인 ‘해킹팀’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건이 있었다. 천안함 폭침에 의문을 제기한 학자, 삼성 갤럭시 신제품과 안랩V3 등을 해킹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정원이 대북용이 아닌 민간인을 사찰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정국을 뜨겁게 달궜다. 그러나 해당 아이টে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불허됐다. 국정원을 다루는 것은 팀의 안위를 위해 좋을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2015년 11월 〈교과서 국정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불허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갈등, 쟁점은 무엇인지 아이টে을 기획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불허되었다. 해당 아이টে을 냈던 담당PD는 PD수첩에 발령 받은 지 두 달이 안 되었지만 곧 다른 프로그램으로 발령받아 나갔다.

2015년 12월 8일 세금체납, 안내는 것인가 못내는 것인가

고액 세금체납 문제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이슈를 다룬 해당 방송 제작 당시, 국장은 고액 세금 탈루 인사인 신동아 최순영 전 회장 취재 부분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학계의 의견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디의 ‘성향’을 알겠다”며 피디를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발언을 하였다.

2015년 12월 <백남기 농민 관련 취재>

“백분토론에서 방송 하니 PD수첩에서 할 필요 없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사용한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템을 발제했을 때, 같은 시사제작국 프로그램인 “백분토론에서 민중총궐기 당시의 이슈들을 점검할 예정이니 굳이 PD수첩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백분토론 제목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대한 내용이 아닌 ‘복면시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2016년 1월 <두산 명예퇴직 관련 취재>

“일개 회사의 구조조정에 아무도 관심 없어”라며 아이템 불허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전 직원의 20%에 달하는 직원을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감축했다. 당시 PD들은 오너의 무리한 인수합병 부작용으로 발생한 회사의 위기를 사원들에게 떠넘기는 대기업의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해당 아이টে을 발제하고 사전 취재에 나섰다.

희망퇴직 대상자와 대기발령 대상자가 된 직원들을 어렵게 설득해 섭외에 성공하고 기획안을 제출했으나 당시 국장은 별 이유를 말하지 않고 아이টে을 불허했다. 당시 팀장 부재로 피디들이 국장을 면담해 아이টে을 불허 이유를 묻자 “2주 후 쯤 되면 일개 회사의 구조조정에 아무도 관심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당시 이미 사회적으로 박용만 회장 등의 구조조정 결정이 크게 비판받는 상황임에도, “기업 경영이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경영진 일방의 발언도 서슴없이 나왔다. 양측의 입장을 공평하게 담겠다는 피디들의 설득에도 아이টে을 끝내 거부되었고, 사건사고 아이টে을인 ‘데이트 폭력’ 기획안으로 교체되었다.

2016년 2월 16일 <캄보디아 우물의 비밀>

방송, 일부 내용 삭제 요구

해외 원조시의 미비한 사전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캄보디아 우물의 비밀> 편. 해당 방송을 시사한 후 당시 국장은 무상원조를 관리하는 기관인 ‘코이카’ 관련 취재 부분을 본인의 명령이라며 전부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그 내용이 삭제되면 방송 분량이 부족해진다는 제작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4분가량이 삭제됐다. 당시 코이카는 대전MBC(사장 이진숙)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6년 5월 <4대강 녹조> 관련 아이টে을 불허 - 이유는

“내가 아는 기상학자에게 물어보니 올해는 비가 많아 녹조가 줄어들 것”

다가올 여름에 4대강 녹조현상이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과 장마 때의 홍수조절 효과의 유효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아이টে을 제언했다. 그러나 당시 국장은 “본인이 잘 아는 기상학자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올해는 비가 많이 올 예정으로 녹조현상도 줄어들 것”이라며 해당 아이টে을 진행을 막았다.

2016년 7월 - 8.15특집 준비하던 PD에게 건넨 특별한 주문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 학자들과 인터뷰 하라~’

8.15 특집아이টে을 준비하던 팀에게 국장은 특별 주문을 하기도 했다. 국장은 이례적으로 기획안까지 직접 써서 해당 회 차 PD에게 건넸는데 제목은 ‘3.1운동과 대한민국 탄생’이었다. 3.1운동이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역할을 했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만들 것을 주문했으며, 친일 논란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기획안에 적힌 인터뷰해야 할 전문가 목록이었다. 이승만을 재평가하자는 자유주의 사학자(이주영), 국정교과서 집필진(김명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역사학자(김용직), 막말 논란을 일으킨 역사학자(유영익) 등 모두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었다.

2016년 12월 20일

국정농단의 숨은 배후, 김기춘과 우병우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 하나둘씩 밝혀지던 시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김기춘, 우병우에게 관심이 모아졌다. 김기춘의 경우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국장은 방송 전체 내용에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김기춘의 간첩조작사건 부분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간첩으로 몰려 수년간 감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스런 증언들이 있었으나 상당 부분 삭제되어 방송되었다.

2017년 1월 10일 <최초증언! ‘김영재 실’의 비밀>

“박대통령 얼굴 많이 쓰지 말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로 시술에 대해 주요 정황을 포착해 방송했다. 해당 방송을 준비할 당시 방송에 박 대통령 얼굴 사진을 많이 쓰지 말 것을 요구했다.

2017년 2월 <위안부와 소녀상>

위안부 아이টে을 두 번 연속 불허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협정이 있었다. 일본정부의 사과 없이 ‘최종적’, ‘불가역적’ 협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한일위안부협정에 대한 아이টে을 기획했으나 국장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허했다. 2017년 2월, 부산동구청 소녀상 철거사건을 계기로 위안부 합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기획했으나 국장은 “길게 다룰 아이টে을 아니다. 시사매거진 2580에서 하기로 했으니 PD수첩까지 할 필요 없다”며 불허했다.

2017년 2월 21일 탄핵, 불붙은 여론전쟁

탄핵정국이 한창일 때, 탄핵반대쪽의 일부 참석자들은 금품을 받고 집회에 참석했다. 탄핵반대집회에는 ‘계엄령을 발포하라’라는 과격한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태극기봉으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찌르거나 구타하는 일도 빈번했다. 이런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자 국장은 내용이 전반적으로 편향되었다며 크게 화를 냈고 “이대로는 방송 불가”라고 말했다. 당시 탄핵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찬성’ 여론이 시종일관 압도적인 수준으로 높았으나 국장은 찬반입장의 기계적 중립을 요구했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내용이 수정되었고, 방송하는 당일 날 아침 두 번째 시사를 받았다.

2017년 4월 <세월호, 101분의 기록> “청와대 를 삭제하라”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야 세월호를 취재할 수 있게 되었다. <세월호, 101분의 기록> 편이다. 그러나 이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검열은 이어졌다. 시사제작국장은 ‘국가’와 ‘청와대’라는 말을 삭제하라 지시했다. 내레이션에서 ‘국가’를 삭제하라고 압박하며 시사제작국장은 ‘제작진이나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국가 탓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세월호 사고 직후 국가안보실과 해경 본청과의 통화 내용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국가안보실이 청와대 소속이 확실하냐’고 물으며 청와대를 뺄 것을 집요하게 강요했다.

2017년 7월 11일 <4대강, 22조는 어디로>

“살아있는 권력 좀 물어 뜯어라”

국장은 4대강 사업의 장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부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과 이낙연 총리의 예를 들며 정치적 논리로 사대강 사업을 방어하려 했다. “박원순 시장도 보 철거 안했다, 이낙연 총리도 인정했다”. 국장은 또한 시사 중 “죽은 권력 좀 그만 물어뜯고 살아 있는 권력 좀 물어뜯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해당 방송을 하면서 국장과 언쟁을 벌였던 담당 PD는 <4대강> 방송 직후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시사제작국
성명서

조창호 국장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이제 함께 나서기로 했다

우리는 어제 한 자리에 모였다.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경제 매거진>, <생방송 오늘 아침> 등 MBC의 시사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와 기자를 비롯한 제작진들이 어제 저녁 시사제작국 총회를 개최했다. 제작 중단에 들어간 <PD수첩>과 함께 우리는 시사제작국 구성원 전체의 투쟁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PD수첩>이 제작 거부에 돌입한 경과를 공유했다. 그리고 그동안 누적돼온 검열과 불방 조치, 제작 자율성 침해 행위가 비단 <PD수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시사제작국에서 제작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아이템 검열, 인터뷰이 검열 등이 행해져 왔으며, 막무가내 전보 조치로 프로그램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특히 <PD수첩>과 함께 MBC의 대표적인 시사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은 조창호 국장 부임 이후 더욱 철저하게 망가져 왔다. 조 국장이 취임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템 검열과 취재 방해, 기사 왜곡이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시점에서는 탄핵 관련 아이템 축소를 지시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이후 이어진 대선 국면에서도 대선 관련 아이템을 다루지 말라고 통보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아이템이나 유명 대기업의 보수단체 지원 아이템 역시 제작이 거부됐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아이템에서는 ‘진실’이라는 단어와 함께 전 정권에 대한 비판, 세월호 특조위 인터뷰, 박주민 의원 인터뷰 등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시의 이유를 묻는 기자를 인사위에 회부하기까지 했다. ‘비선 진료’ 아이템에서도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치부인 BBK 사건의 핵심이었던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의 단독 인터뷰 아이템을 발제했을 때는 뚜렷한 이유 없이 “본인이 국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절대 안 된다”며 취재 자체를 불허하기도 했다.

<시사매거진 2580>에서 ‘시사’를 지우려는, 프로그램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어이없는 제작지시가 이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사측은 “시사제작국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제출된 어떠한 사전 기획안도 거부되거나 제작이 중단된 적 없다”는 뻔히 드러날 거짓말로 상황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조창호 국장은 <2580> 무력화를 위해 기존 인력에 대한 대규모 막무가내 전보를 감행했다. 부임 직후인 지난 4월과 5월에 담당 부장과 데스크, 그리고 기자 4명을 아

무 예고 없이 다른 부서로 쫓아냈다. <2580>을 오랜 시간 지켜왔으며, 조창호 국장의 아이템 검열이나 황당한 취재 지시, 기사 전횡에 적극적으로 항의했던 기자들이었다.

이들이 떠난 자리는 2580처럼 호흡이 긴 보도제작물 뿐 아니라 일반 방송 뉴스조차 제대로 제작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취재 기자들이 아이템을 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과 부장의 입맛에 맞는 아이템이 많아졌다.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소, 한미 FTA처럼 예민한 아이템을 최소한의 형식적인 균형도 지키지 않은 채 편향된 방향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현재의 <시사매거진 2580>은 강점이었던 제작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다. 부장과 데스크는 아무 결정권이 없고, 심층 아이템을 취재할 기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과거 <2580>의 자율적인 논의 과정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로 인한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은 시청자들의 외면을 부르고 있다.

시사제작국은 MBC의 자랑이었던 시사교양국과 보도제작국을 해체한 산물이었다. 조직이 해체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PD수첩>과 <2580>이라는 MBC의 자산을 지키려 애를 쓰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나 대책 없는 조 국장이 계속 남아 있다면 20여 년간 쌓아 온 <시사매거진 2580>의 명성은 사라지고, 프로그램은 오히려 사회적 흉기로 바뀔 것이 자명하다.

조직의 해체 후 좌절감과 사명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프로그램을 지켜오던 우리는 시사제작국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MBC의 시사, 보도제작 프로그램을 지켜내는 싸움을 새로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는 공정방송을 말살하려는 경영진의 만행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조창호 국장은 당장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사제작국 구성원들은 <PD수첩>과 함께, 같은 길을 걸으며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7년 7월 26일

시사제작1부 <경제매거진> : 강연섭 이호찬 송형근

시사제작2부 <시사매거진 2580> : 공윤선 권혁용 노경진 박종욱 박진주 방종혁 서태경 손재일 송록필 이신임 이주영 이지수 장재현 조의명 외 3명

시사제작3부 <PD수첩> : 강호임 김현기 서정문 소형준 이영백 전준영 조윤미 조진영 최원준 황순규

시사제작4부 <생방송 오늘 아침> <생방송 오늘 저녁> : 김동희 오상광 이모현

김장겸 감사려 ‘직무유기’ 일삼는 방문진

2016년 MBC 경영평가보고서 채택 두 차례 무산

방송문화진흥회가 ‘2016년 MBC 경영평가보고서’ 채택을 또 무산시켰다.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채택에 실패한 이후 두 번째다. 방문진은 지난 2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2016년 경영평가 결과 승인 및 공표 결의’ 건을 논의했지만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의 거듭된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은 이번에도 보고서의 보도·시사 분야를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사유로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법정 제재만 8건에 이른다”며 “원만한 노사관계와 미래지향적 조직 문화 정립을 통해 공영방송사의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 여권 이사들은 이같은 비판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찢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이들이 억지 논리와 궤변을 동원해 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속내는 분명하다. 지난해 보도·시사 분야의 책임자가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김장겸 사장이기 때문이다. MBC의 관리 감독 기구인 방문진의 공식 보고서에 김장겸이 빚은 ‘보도 파탄’의 흑역사가 기록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경영평가보고서 채택은 방송문화진흥회법 10조에 명시된 방문진의 결의사항이다. MBC의 보도·시사, 편성·제작, 경영, 기술 등 4개 분야에 대한 경영 성과를 매년 종합 평가하는 방문진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보고서는 통상 매년 6월 채택돼 공표와 함께 국



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도 제출된다. 그러나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은 보고서 채택의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맹점을 악용해 발목 잡기와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직무유기하는 행위이다.

방문진은 보고서 작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외부 교수들로 구성된 취지도 훼손했다. 맹목적인 흠집내기로 평가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 오늘날 MBC 몰락의 배후로서 추궁 당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이다. 방문진은 다음달 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경영평가보고서 채택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MBC 파괴가 한국 언론자유 후퇴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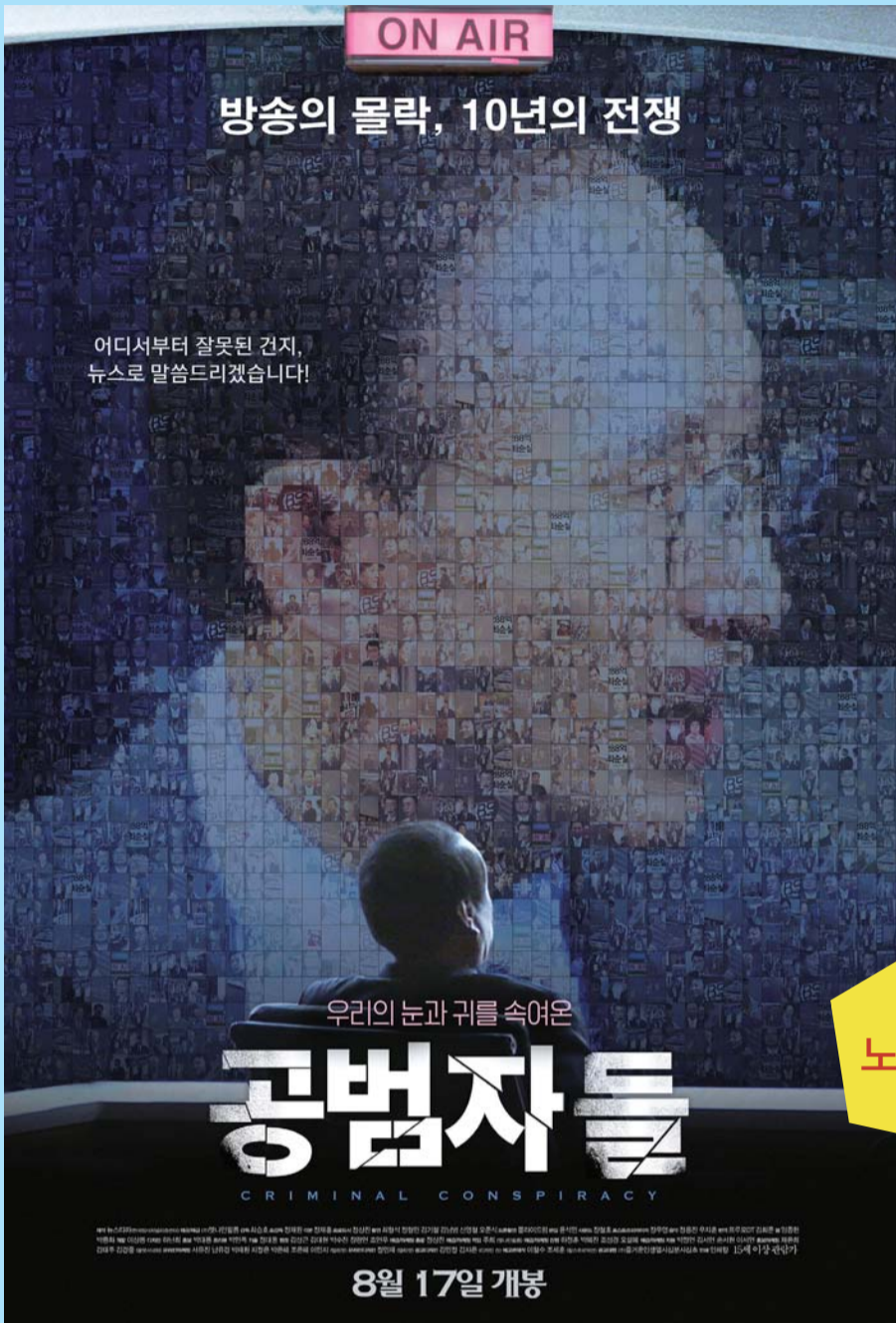
노동조합·국경없는기자회, MBC 정상화 연대 투쟁 결의

언론탄압을 감시하는 국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MBC 정상화를 위해 노동조합과 연대의 손을 맞잡았다. 지난 20일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국경없는 기자회’와 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이 한국 언론자유 하락의 큰 원인이라는 데 공감했다. 그 중에서도 MBC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국경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은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체포, 사측의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 MBC에서 자행된 언론탄압 사례들에 대해 “눈에 보이는 감옥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감옥도 있다”며 “기자를 해고하고, 시민들이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도 감옥”이라고 지적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 명예이사도 “MBC의 현 경영진이 먼저 퇴진해야 한다”며 “동료 언론인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경영진으로 들어서야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바디 명예이사는 특히 4대강 사업 문제를 심층 취재한 한국 언론의 보도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최승호 PD가 <PD수첩>에서 4대강 운하 개발 의혹을 폭로했다는 사실을 듣고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MBC 구성원들의 모금으로 게재된 신문 광고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지지를 표했다. <사진 아래>

2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국경없는 기자회’는 MBC 사태를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국경없는 기자회’ 동아시아 지국과 긴밀히 교류하며 연대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언론 회복 프로젝트 〈공범자들〉, MBC 파괴범들 정조준

다음달 17일 개봉 ...
“어려, 이걸 꼭 봐야 돼!!”

MBC 해직 PD인 최승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공범자들〉이 다음달 17일 개봉된다. 지난 15일 제21회 부천판타스틱국제영화제에서 공식 첫 선을 보여 기대감을 높였다. 〈공범자들〉은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 또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방송 종사자들을 탄압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는지 그 실상을 낱알이 고발한다. 노동조합은 다음달 2일(수) 저녁 7시 상암CGV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개최한다.

〈공범자들〉
노동조합 시사회

언 제 : 8월2일(수) 저녁 7시
어디서 : 상암CGV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노동조합 카카오톡으로 신청
해주세요

카카오톡 채팅 → 윗부분 돋보기에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검색 → 친구 추가 후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서울을 제외한 각 지부는 8월10일 이후 예매권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저녁 6시30분 상암광장
모여서 외칩시다!

“김장겸 OUT!”

“고영주 OUT!”

‘돌마고 불금 파티’
오늘은 **마보춘**입니다